

# 시니어 순모임(4월)

인도: 순장  
대표기도: 말은이

📍 찬 양 \_\_\_\_\_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_\_\_\_\_ 다같이

📍 대표기도 \_\_\_\_\_ 말은이

📍 감사제목 나누기 \_\_\_\_\_ 다같이  
(한 달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 기도제목 나누기 \_\_\_\_\_ 다같이  
(본인의 기도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니다)

📍 말씀 나누기 \_\_\_\_\_ 말은이

📍 합심기도 \_\_\_\_\_ 다같이  
1. 온 교회가 기도로 뜨거운 영적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2. 생명나눔을 통한 구원의 기쁨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소서

📍 광고 \_\_\_\_\_ 말은이

📍 주기도문 \_\_\_\_\_ 다같이

알려드립니다.

1. 특별새벽기도회가 4/3(월)-7(금)까지 5:30am에 있습니다. 온라인 생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성금요일 예배가 (성찬식) 4/7(금), 7:30pm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날은 "Passion 24" (24시간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원하시는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3. 5월 13일(토) 오전 10시 본당에서 "시니어 봄축제"가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주안에서 교제와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165

## 주님께 영광

(통일 155)

조금 빠르게

1.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2. 부활의 주님 나타내사 주 두려움과  
3. 생명의 임금이 영광의 주 주님 주님 없는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의심 물리치셨네 주 의 교회 기  
삶은 헛될 뿐 이라 주 의 사랑 으

들을 울렸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없네  
세상이 가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후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 물동이를 버린 여인, 요한복음 4:27-29

우리 교회가 올 해 함께 하는 사역은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눔은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솔직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외침으로 세상을 깨운 여인, 생명나눔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한 여인을 만나기 바랍니다.

첫째, 생명나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생명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 감격에 찬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꾼 여인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여인은 뜨거운 대낮에 사람을 눈을 피해 물을 길으러 온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이 이런 여인에게 생명나눔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도 여행에 피곤한 예수님께서 멀리서 다가오는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그에게 구한 것은 야곱의 우물이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하늘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이 한 일은 참 놀랍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마을 사람 앞에 도저히 나설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것을 너무나 힘겨워했고 늘 혼자 지내다 보니 어찌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불안 속에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기쁨과 환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여인은 마을로 뛰어 들어가 소리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리기 위해 왔지만, 하늘의 생수를 만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여전히 목마른 세상의 물동이기가 아니라 영원한 만족인 예수님으로 영혼의 물동이를 채우게 됩니다. 참으로 가련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 생명나눔에서 배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녀가 한 고백은 위대한 신앙고백은 철저한 복음전파 아닙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솔직하게 나눈 것입니다.

둘째, 생명나눔은 생명 탄생의 확산을 가져옵니다.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던 이 여인의 눈빛은 달랐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외쳐 예수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사람들은 이 여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여인으로 인해 귀로 들은 복음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 한 여인에게 임한 영적 변화로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은 예수님 약속대로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선포되었고 마침내 미국,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셋째, 생명나눔은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35절, “**너희는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 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뜻은 나를 보내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요 그 말씀 따라 생명나눔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매일 살아가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